



전남교육청, 초·중 기초학력 다진다

‘교실 안·학교 안·학교 밖’

책임교육 3단계 안정망 구축

단계별 지원 학습격차 해소

전남교육청이 2021 기초학력 진단검사 이후 초·중학교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교실 안·학교 안·학교 밖’ 등 3단계 안정망을 구축,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최근 2021학년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진행,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 점검과 학습결손 여부를 파악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학력 책임교육 3단계 안정망을 구축했다.

도 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학교별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학교급과 교과 담임교사가 학습부진 원인, 학생의

특성을 파악해 개별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도록 계획이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학습 검사를 진행, 초기문해력 중심의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1단계에서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 48명을 학교에 배치해 초기문해력과 기초수해력 미해득 학생을 대상으로 1대 1 개별화 맞춤형 지원을 한다.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지원 역량강화 연수를 하고, 초등 저학년 대상 낭독하기·글쓰기·셈하기 유창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다정다감교실 500학급을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온라인 튜터 119명을 초·중·고 83개교에 지원하고, 초·중 474개교에 두드림학교를 운영한다.

경계선 기능과 읽기·쓰기·셈하기 부진학생을 위한 ‘친철훈 배우는 학생 프로그램’을 초·중 384개교에 지원했으며, 수업 중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

원을 위한 선도학교 13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기중·방학중 프로그램과 연계해 대학생 멘토 377명도 지원한다.

3단계는 학교밖 지원으로 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와 시·군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는 교사 대상 연구·연수·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22개 교육지원청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에게 찾아가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종혁 전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교별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단기적·단편적 지원이 아닌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기초학력은 보장하고 학습격차는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목포대, 전남도 지역대학 연구인재 육성 프로젝트 6명 선정

내년 2월까지 외부기관과 공동연구

목포대학교가 전남도 지원 ‘제1기 지역대학 연구인재 육성 프로젝트’에서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6명이 선정됐다.

‘지역대학 연구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지역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지역대학(대학원생)과 외부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는 도내 소재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미래산업 또는 지역 현안을 주제로 공공연구소, 지자체 출연기관 및 기타 민간연구소 등과 공동연구가 가능한 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목포대는 해

양역사지원(인문사회)에서 신재생에너지(응용과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할 총 6명의 석사과정 재학생이 최종 선발됐다.

이번에 선발된 대학원생은 약 10개월(최대 주 40시간) 동안 본인이 신청한 연구주제에 대해 사전 협의가 이뤄진 연구기관에 상주하며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프로젝트 참여 대학원생에게는 전남도 지원으로 참여 시간에 따라 월 최대 182만원의 공동연구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공동연구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결과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또는 국제학술지 논문(SSCI, A&HCI, SCIE, SCOPUS) 게재와 특허, 저서, 학술대회 참가실적 등을 제출하게 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전공 관련 분야 기업 계절학기 현장실습 지원

현장 밀착형 인재양성·실무능력 향상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전공 분야와 관련된 기업 현장에 학생들을 파견하는 ‘202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현장의 제반 기술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참여 9개 학부(과) 3·4학년 및 5학년 학생이다.

현재 광주대 LINC+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과)는 ▲융합디자인학부(시각영상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사진영상드론학과 ▲건축학

부(건축학) ▲컴퓨터공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과 ▲전기전자공학부 ▲미래자동차학과(IT자동차) ▲융합기계공학과(기계금형공학부) 등이다.

현장실습은 다음달 21일부터 4주 또는 8주 동안 진행되며, 학생들은 실습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실습기업에는 실습지도원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대 LINC+사업단은 지난 2월 장기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노승찬(컴퓨터공학과·4) 등 2명의 학생에게 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전공과 맞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中유학생 창작이모티콘 ‘꿀벌 소돼지’ 위챗 마켓 등록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장철투

호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중국 유학생 ‘장철투’ 학생의 창작품 ‘꿀벌 소돼지’ 이모티콘이 중국 최대 SNS 회사인 위챗 마켓에 정식 등록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철투 학생은 이번 학기 정보디자인 수업을 이수하고 수업을 담당한 예웨이 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모티콘 시리즈 ‘꿀벌 소돼지’를 창작했다. 이후 전 세계 이용자 수가 10억 명에 달하는 중국 최대 SNS 회사 텐센트(Tencent)가 지난 2011년 창립한 메신저 위챗의 이모티콘 마켓에 투고하고 수차례 수정작업을 거친 끝에 이 같은 쾌거를 이뤘다. ‘꿀벌 소돼지’ 이모티콘은 지난 5월 16일부터 위챗 이모티콘 마켓에 정식 등록돼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고 ‘좋아요’ 클릭 수만 큼 수입도 발생한다.

장철투 학생은 “정보디자인 수업과 추가 지도를 통해 이모티콘 제작에 도움을 주신 예웨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인생 첫 수입이 생겨 매우 뿌듯하고 앞으로 움직임이 있는 꿀벌 소돼지 작품 제작에도 도전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역 일대 스타트업 랜드마크 조성 전남대, 복합허브센터 연구개발 주도

전남대학교가 올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다.

전남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145억원을 지원하고, 광주시가 189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에 광주지역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한다.

이 사업은 개방형 창업 생태계 축진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역 일대에 스타트업 파크, 복합허브센터, 지식산업센터 등이 집적화된 스타트업 랜드마크를 조성하게 된다.

광주시가 주관하고 전남대,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과학기술원이 협력기관으로 함께 참여한다.

전남대는 이 사업에서 복합허브센터 내의 에너지 R&D지원실 운영과 함께 R&D지원, 장비지원, 교육훈련, 투자펀드 운영, 기업성장 단계별 R&D 지원을 통한 기업의 Skill-

up을 지원한다.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광주역 일대는 우수한 교통입지 여건과 더불어 호남권 최대의 문화, 교육, 상업, 의료의 집적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복합허브센터,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개방성 확보와 함께 복합허브센터 내 창업기업과 지원기관 협력이 가능한 디지털 공간이 구현돼 ‘광주형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그린 스타트업 타운은 광주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산업 활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전남대는 사업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플랫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학교장 등 관리감독자 268명 대상

광주교육청이 학교장을 포함한 관리감독자 268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6월24일까지 ‘2021년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정기교육은 학교(기관 포함)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함이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특성과 재해예방 지식 습득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지도·관리 직무능력이 향상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연간 16시간 이수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원격과 집합교육 방식을 병행,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위탁교육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정기교육은 학교 현업근로자의 직종별 안전수칙, 학교의 주요 재해사태와 예방대책을 다룬 학교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업병·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등도 교육과정에 포함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예금 한시모집!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8개월 연 1.87% 세전/만기해지

12개월 연 1.80% 세전/만기해지

※한도 소진시 조기 마감됩니다.

1인당 1,000만원까지 완전비과세
(광주 북구 및 광산구 거주민 가입 가능)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보호대상아 아니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화신협
첫거래시

행복적금 연 4.0%

(1인 월20만원 한도, 오픈뱅킹 가입조건)

세전 / 만기해지

주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탁금 및 적금은 신협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교세중합저축 가능합니다.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협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본점 (광주 북구 문흥로 38)

266-4150

양산지점 (북구 양산로 55)

573-4150

운암지점 (북구 북문대로 48)

528-4150

동림지점 (북구 북문대로 238)

513-4150

매곡지점 (북구 설국로 315번길1)

572-4150

첨단지점 (북구 첨단로 91번길2-1)

576-4150

동광주지점 (북구 동문대로 187)

264-4150

각화지점 (북구 동문대로 233, 235)

263-4150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광교심리책임자 심의필 제2021-25호(2021.04.30.) 유효기간(2021.05.03.-2021.05.31.)